



구례 화엄사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핀란드 현지인들에게 불교와 한국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구례 화엄사, 기독교 나라에 불심 지핀다

핀란드 국립박물관서 한국문화·전통불교 전시회... 유럽 포교활동 교두보로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가 기독교의 나라 핀란드에 불심을 지핀다.

구례 화엄사가 국내 처음으로 핀란드 정부의 후원으로 현지 국립박물관에서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여는 등 북유럽 포교에 나선다.

이번 핀란드 포교는 한국 불교를 현지인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불교의 불모지로 알려진 유럽지역 포교활동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엄사(주지 종삼)는 오는 4월2일 핀란드 헬싱키 국립박물관에서 핀란드 정부와 현지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와 한국전통불교’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오는 12월30일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된다.

전체 종교인구 가운데 90%가 루터교 교회 신자인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핀란드에서 한국 불교가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300여명의 핀란드 국립박물관 전시장을 무료 대관하고 전시장 부스 등 전시공간 조성 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화엄사는 지난 2005년 템플스테이를 통해 핀란드와 인연을 맺게됐다. 당시 핀란드에서 작품활동을 하던 공예가 안애경씨와 함께 화엄사를 방문한 핀란드 박물관장, 대학교수 일행이 화엄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것이 핀란드 포교의 계기가 된 것.

이후 안씨는 화엄사를 방문해 “핀란드 현지에서 ‘한국문화 및 한국전통불교’를 알리는 박람회’를 겸한 문화행사를 열고 싶다”고 제안, 화엄사측이 수락하면서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

화엄사는 사찰 전경, 다도, 예불 및 목경 등 스님들의 수행모습을 담은 사진자료와 DVD 영상물을 제작,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에는 한국 선불교를 관람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禪), 명상’의 공간도 설치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화엄사 포교국장 대요 스님은 헬싱키를 비롯한 핀란드 지역을 순회하며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강의와 함께 한국 선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참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한국 선불교에 대한 현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핀란드어로 번역된 홍보책자도 비치된다.

전시에서는 전통 한옥과 온돌, 도자기, 다기, 한복 등 한국문화를 알리는 사진과 자료들도 선보인다. 또 나무, 철, 섬유, 전통한지를 활용한 전통 공예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인의 일상에 담긴 예술적 감각과 옛 장인들의 모습을 현지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대요 스님은 “불교가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핀란드에 한국 전통 선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가 포교와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필기자 penfoot@kwangju.co.kr

단신

전남대 평생교육원 봄학기

기독교인 지도자과정 개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07년 봄 학기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강좌로 성경동화구연 지도자과정과 복음성가 교실을 각각 개설한다.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위한 성경동화구연 지도자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성경을 동화구연 형식으로 들려주기, 시청각 자료 만들기 등을 교육하며 양소영씨가 강사로 나선다. 강습비는 12만원.

“행복모자”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기현수씨의 복음성가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학교 대강당 4층에서 열린다.

찬양과 음악이론부터 호흡, 발성, 덕선, 시창 등 다양한 실기교육이 이루어진다. 062-530-3873.

마음을 밝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 오신날 봉축 포어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는 지난 달 봉축포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345점 가운데 ‘마음을 밝게 세상을 향기롭게’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에 당선된 최유진(40·캐나다 밴쿠버)씨는 새 포어가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곧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불기 2551년(2007년) 부처님오신날은 오는 5월24일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 칼럼



여연스님

삶이 피폐할 수록

마음의 여유를

대둔산(大屯山) 구곡장춘(九曲長春·대홍사 가는 길의 옛 이름)에 봄이 왔다. 시냇물 새살되는 계곡이 하두 길어서 봄이 빠져나가기에 더디 간다는 그 아홉구비에 매화가 피었다.

분홍빛 진달래도 노오란 산수유도 피어 벌써 꽃잎들이 아지랑이 속에 묻혀 휘날린다. 애환의 그리움이 북받칠때 부르던 우리들 서민의 노래가사처럼 “연홍빛 차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드라 산재비 날아들던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새가 울고 꽃이 지면 봄날이 가듯...” 아 그렇게 이 완연한 봄이 오고 있다.

바다에서 들녘에는 노고지리가 울고 산남에 남촌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고, 속남새 냉이 냉새가 가난한 삶, 촌로의 저녁 식탁에 그윽한 향연으로 젖어드는 봄날이 오고 있다.

문득 이 봄날에 초가집 차일을 짓고 4년을 홀로 살았던 일지암 초의 큰스님의 뜻을 따는 정자에 앉아 매화를 읊은 시(詩) 한편이 어떨까한다.

“늙은 매화 한 그루 벌이 집 떠나 돌아온 나를 반기네 맑게 그윽하게 아주 이쁘게~ 여린 꽃잎은 안개비 머금어 애잔하고 비단에 덮인 듯 어슬프레 하구나 고운 향내 저문 밤에 더욱 짙게 풍겨어 눈 쌓인 산천에 홀로 한창일세 하고, 나는 이제 국수와 채소로 배를 채웠으니 다시 무엇을 바라라...”

눈속에 홀로된 매화가 먼길 떠나 돌아온 나그네 맞는 고적한 정취. 그리고 소박한 밥상 自足(자족), 스스로 삶을 만족한다는 것 만큼 행복한 생각이 어디 있었는가?

맑은 차 한잔과 술향기 대추 바람소리에 생을 꾸렸던 초의 스님과 평생의 지기였던 추사 김정희는 또 어찌 살았는가. 생의 절반을 유배와 모략중상의 상처로 살았던 그의 영혼 만은 참으로 맑았다.

“산은 텅비어 달빛은 더욱 빛나네. 물은 스스로 흐르고 산꽃은 절로 피네. 홀로 고요로움 즐기며 차를 마시는 향기 처럼과 한결같으니.” 해가 갈수록 더 내몰리는 우리들의 삶, 이봄을 어찌 맛있게, 피폐할 수록 맑은 자족(自足)을 갖자.

(대홍사 일지암 임주)

‘가톨릭신문’ 창간 80돌 행사 풍성

가장 오래된 국내 주간신문, 국제학술대회 등 마련

국내 최고(最古)의 주간지 ‘가톨릭신문’(사장 이창영 신부)이 창간 80주년(4월1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오는 24일까지 중국의 가톨릭계 신문 ‘Faith(信德) 10-DAY’ 장소장 사장을 비롯해 일본과 인도 등 동아시아 8개국 가톨릭신문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아시아지역 가톨릭계 신문 대표자 모임’을 개최한다.

이밖에 ▲80년사 발간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희망 나눔 자선콘서트(4월29일·대구 월드컵경기장)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마련됐다.

또 미래내 환경 마라톤 대회(5월13일),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성요셉수녀회 헬렌 프리진 수녀 초청강연(5월24~25일) 등 80



주년 기념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교구장 이문희 대주교)에서 발행하는 가톨릭신문은 1927년 4월1일 당시 대구교구 산하 남방천주교청년회(사진)의 기관지로 창간됐다. 당시 제호는 ‘천주교회보’였다.

이 후 가톨릭신문은 1933년 폐간돼 16년 만인 1949년 4월1일 제74호로 복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행사 문의 02-778-7671.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남구청, 초등 저학년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

광주시 남구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보육교실’을 지원키로 했다.

22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관내 3개의 초등학교에 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5천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지원 내역은 각 학교 당 리모델링 비용 1천만원 등 모두 3천여만원과 학교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 등이다.

교육청이 예산 상의 이유를 들어 ‘방과후 보육교실’의 확대 개선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 더욱 눈

길을 끈다.

지원을 받게될 학교는 관할인 광주시 서부교육청과 합의 하에 유육교실이 있는 곳,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많은 곳 등을 기준으로 정해 질 예정이다.

남구청의 이번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남구청은 시범사업 선정과 함께 3년 동안 연간 3억원의 국비를 받게 됐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0~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만든 종합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재 ‘방과후 보육교실’은 광주시내 136개 초등학교 가운데 30.9%인 42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매년 20여개 학교에서 보육교실을 개설한다는 목표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오른쪽)는 지난 연말연시 희망2007 결식학생돕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 7천472만9천320원을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에 전달했다. 성금은 빈곤계층 학생들의 종식비로 전액 지원된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300 (18세)	최고급관
2관 300 (18세)	
3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4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爰) (15세)	
5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12세)	
6관 페인트 베일(12세)/쓴다(15세)	
7관 일루셔니스트	
8관 수 (18세)	
9관 넘버23 (15세)	

Megati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취폐-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초 228-2700

1관 일루셔니스트 (15세)
2관 바람피기 좋은날(18세)
3관 1번가의 기적 (15세)
4관 복면달호(12세)/스모킹에이스 (18세)
5관 수 (18세)
6관 좋지아니한가 (15세)
7관 행복을 찾아서 (연세)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지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중, 고생 1,500원 할인 (공휴일제외)

황포시장 영화시영 *예매: www.joycbs.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연화관팍만)

1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爰) (15세)
2관 1번가의 기적(15세)/나비효과2(15세)
3관 쓴다 (15세)
4관 넘버23(15세)
5관 페인트 베일(12세)/리틀러너 (12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수 (18세)
8관 일루셔니스트 (15세)
9관 수 (18세)
10관 300(18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입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 상담원연결 방법 -4번 or 2번 ->아면

즐거움이 가득 * www.mcl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초 232-9106

1관 쓴다(15세)
2관 그 여자작사, 그 남자작곡(12세)
3관 300(18세)
4관 넘버23(15세)
5관 수 (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일루셔니스트 (15세)
8관 1번가의 기적(15세)
9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爰) (15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평) 3시간 무료주차
 * 탐방객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주차 마련 인터넷 예매 문의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